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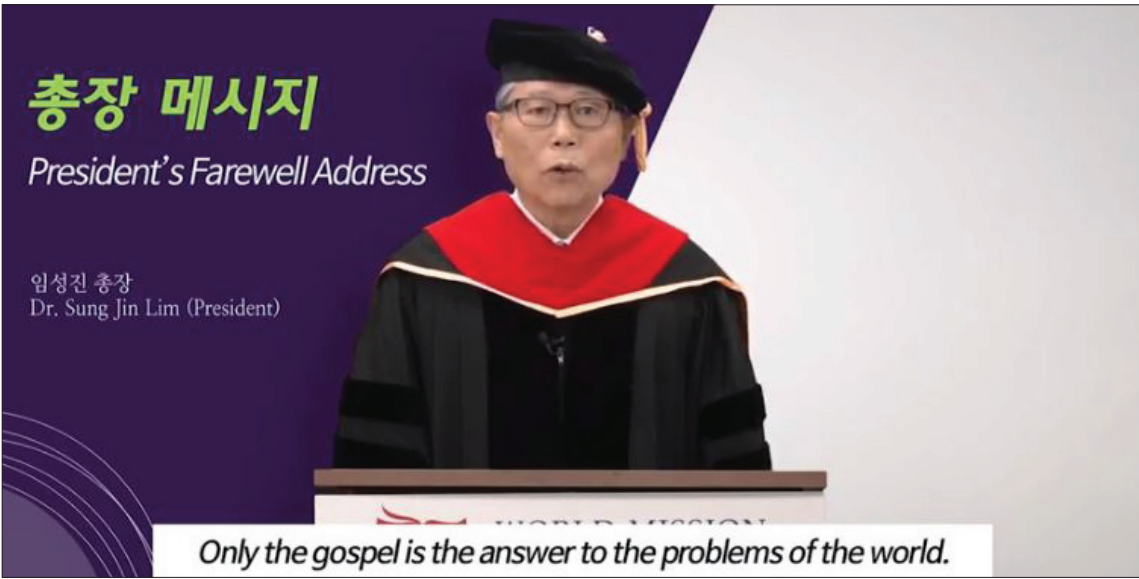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 2020 학위수여식 101명 졸업생 배출

“진리의 밝은 빛 비추는 예수님 제자 되라”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제29회 학위수여식 갖고, 학부(성서학, 기독교상담학, 음악학) 대학원(목회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졸업생 총 101명에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올해 학위 수여식에는 지난해에 이어 라틴프로그램으로 16명의 히스패닉 졸업생을 배출했고, 중국 사역자 및 선교사들도 온라인으로 학업을 마치는 등 세계화를 향한 학교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 가능성이 엿보였다.

총장 메시지를 전한 임성진 박사는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며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만방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는 예수님



2020 월드미션대학교 제 29회 학위수여식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임성진 박사

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한 홍철화 씨는 “고통받고 어려움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가정과 교

회와 사역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총장 특별상은 1991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29년째 병상생활을 하면서도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벤엘교회 윤석원 전도사

가 수상했다. <꿈작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의 저자 이기도 한 윤 전도사는 전신마비의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감박이는 방법으로 타이핑을 하며 수업을 마쳤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

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모든 학과가 100% 온라인 교육 인가를 받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며 졸업 후 미국 유수의 기독교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대학과정은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대학원 과정으로는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박사과정으로는 교회음악학 박사, 목회학 박사과정이 개설돼 있다.

기독교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S)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현재까지 1,106명의 졸업생이 목회자, 선교사, 교회음악사역자, 목회 상담가,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NCKPC 총회장, 6.25 70주년 매일 새벽 구국기도회 권고

PCUSA 내 한인교회 연합체인 NCKPC의 최병호 총회장이 회원교회들에 6.25 7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구국기도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총회장은 9일 회원교회들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6월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지 70년을 맞이하는 달이다. 오늘날 한국은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섰다”면서 “2020년 유엔스 뉴스&월드리포트에 의하면 한국은 8위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9대 강국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총회장은 “이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한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어 통일된 이스라엘을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총회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6월 한 달 동안 회원교회마다 매일 새벽 특별 구국기도회로 모여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그가 제시한 기도제목은 △이 땅의 코로나 재앙, 인종차별, 불의, 불법, 폭력, 부정부패, 온갖 죄악들이 고쳐지도록 △남북한이 분쟁을 넘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이문화 장로의 총회장 당선으로 교단에 신앙

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등이다.

최 총회장은 이와함께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시위에 동반된 약탈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최 총회장은 “미국은 통일된 나라 연방공화국을 건설했으나 인종



NCKPC 최병호 총회장

갈등으로 차별과 폭력이 난무했었고,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가 담대히 일어나 무저항, 비폭력의 기독교 복음을 선포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면서 “그러나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과 죄악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통해 폭발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시위 과정에 발생한 약탈 등에 대해서는 “방송구, 시청, 경찰서, 경찰차, 백화점, 가게들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있다”면서 “6월 5일 집계로 의하면 미국의 한인 상점 150개가 불에 타거나 약탈을 당했다고 한다. 워싱턴DC에서는 한인교회가 약

탈에 가담했다 체포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 총회장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제2의 마틴 루터킹이 되어야 할 때”라며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을 사악한 폭도, 약탈자, 살인자로 만드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 물리쳐야 한다”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영생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자”고 권면했다.

김대원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미드웨스턴 올 가을 교육학 박사과정(Ed.D) 신설

기독교 가치가 부재한 현대 교회의 회복은
기독교 교육 정신의 회복으로부터

“교회를 위하여”란 핵심 가치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 온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 2020년 가을학기부터 교육학 박사 (Ed.D.; Doctor of Education)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혁신의 아이 콘답게 4년 전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과정을 개설하여 올해까지 6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했고, 3년 전에는 선교/설교/상담 목회학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다변화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양성해왔다. 북미의 한국어 학위과정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드웨스턴이 새롭게 여는 교육학

박사과정은 총 40학점(9과목)으로 공통필수 3 과목, 전공필수 4 과목, 전공선택 2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전공과목으로는 “문화 해석과 인식” “응용 통계분석: 측정과 검사” “인생 전기 발달과 교육 실천” “연령별 심리와 제자도의 교육학적 융합” “4차 산업혁명과 신교육이론” “상담교육” “교육 이론과 사역 실천의 통합” “고등교육의 교육 원리와 방법론” “교육기관 행정” “교육 리더십” “기독교 영성과 정체성 교육” 등이 열릴 예정이다.

본 과정에는 ‘한국 어린이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승현 교수, 사랑의교회 전 국제제자훈련원장 김명호 교수, 목회리더십연구소장 심민수 교수, 이효정 교수, 박경환 교수, 박영주 교수, 장주동 교수가 지도하게 되어 본 과정의 전문성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성이 무너지가는 현대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이고 전인적인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독교 교육정신의 확립은 결국 한국 및 한인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또 기존의 교육목회학 박사과정과 교육학 박사과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목회학 박사과정이 교육학과 목회학을 융합시켜 교회 교육의 환경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접목시킬 방법론에 초점을 둔 과정이라면, 교육학 박사과정은 다양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의 환경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둔 전문적인 교육학 학위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교육학 박사과정은 선교지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신학교를 포함하여 교육 사역을 하려는 선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위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ks@mbts.edu, 816-414-3754

휴스턴 새누리교회 “셋이야 유튜브 토크쇼” 화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예배를 비롯해 다양한 모임들이 빠르게 온라인화되면서, 성도들은 오랫동안 직접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성도가 게스트로 출연하는 교회 토크쇼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며 화제다. 또 온라인 사역에 박차를 가하는 미주 여러 지역교회에 도전 을 주고 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새누리교회(New Baptist Commu-

nity Church,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시간과 어울리는 “셋이야”라는 타이틀의 토크쇼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였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의 말씀처럼, 각 가정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소망하고자 만든 제목이다.

“셋이야”라는 제목에 걸맞게 토크쇼에는 3명의 출연자 (한 명의 진행자와 두명의 성도 게스트)가 출연

하여, 대화와 찬양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방송을 보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일깨웠다.

첫 방송의 게스트로는 새누리교회 성도인 김상택, 차희연 부부가 출연하여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가정을 인도해주신 이야기와 휴스턴의 유명한 암 전문 병원 MD Anderson의 의사로서 사랑으로 환자들을 섬겨온 형제의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의료상식, 그리고 음악 전문가 부부의 특별한 악기 연주로 찬양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첫 방송을 시청하고 유튜브 댓글 및 sns를 통해 소감을 전한 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과 그동안의 우울함을 달래주는 게스트의 연주가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모두들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방송 기획이다.”, “편안한 진행과 게스트들의 환한 미소속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평안을 느끼게 한다.” 와 같은 기대의 메시지를 교회 측에 전했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CMF선교회 대표 김철민 장로(좌)와 JAMA 대표 강순영 목사(우)

청교도 400주년, 미주 한인 청교도 정신 회복하고 미국 부흥 위해 기도해야

CMF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는 지난 6일, CMF 회관에서 6월 정기모임 예배를 갖고 미국의 신앙 회복과 정치,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제프 김 선교사(영국 선교사)가 대표 기도한 후 강순영 목사(JAMA 대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청교도, 그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신명기 6장 4-9절과 28장 1-2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순영牧사는 “올해로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아 우

리가 미국에 진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갠도록 우리를 이때에 미국 땅에 보내 주셨다고 믿는다”며 “제2의 청교도로 부름 받은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청교도 정신으로 순결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이어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한번 복음과 신앙의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한다”며 “교회마다, 도시마다,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회개 기도 에 이어 미국의 부흥과 인종 간의 화합,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6.25 한국 전쟁 70주년 행사

- 일시 :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온라인 행사로 진행 : CTS기독교 방송 중계, 유튜브)
- 문의 : 강태광 목사(323)578-7933, 박세현 목사(323)404-3147

- 주 관 - 세계기도모임 미 서부지부
- 공동주최 - 남가주 6.25전쟁 70주년 기념 사업회 / 세기모서부지부 / 은혜 한인교회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 / 충현 선교교회
- 협력언론사 - 기독교일보 / CTS기독교 방송 / KCBC 우리 기독교 방송
- 대 회 장 - 강순영 목사 / 민종기 목사 / 박흥기 회장 / 한기형 목사 / 한기홍 목사
- 준비위원장 - 김영구 목사
- 진행위원장 - 강태광 목사 / 박세현 목사
- 실행위원장 - 양경선 목사

우리는 625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구세군 나성교회, 코로나 극복 위한 사랑의 마스크 나눈다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사관과 넘버 원 뷰티 앤 코스메틱 이훈 대표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는 넘버 원 뷰티 앤 코스메틱(NO1 Beauty & Cosmetic 대표 이훈)으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 2만 7천 장을 LA 지역 노숙자 및 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지역 사회를 위해 선행을 이어 온 이훈 사장은 추후 흑인 사회를 위한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할 의사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철 사관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온정을 이어가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구세군 나성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LA 지역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식료품은 LA 코리아타운 올림픽과 후버에 위치한 구세군 한인교회(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식료품 및 물품 기부에 참여할 개인이나 단체는 구세군 나성교회(213-480-0714)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UMC, 코로나로 인해 헌금액 최대 절반 가량 감소



과거 UMC 총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목회자들.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교회 폐쇄로 인해 헌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UMC 교단 재무 및 행정위원회(GCFA)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폐쇄기간이었던 4월 한달간 헌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한 수준이었으며, 2017년에 비교해서는 45%가 낮았다.

현재 미국의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업장 중단 등으로 인해 300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다른 교단들도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폐쇄로 이와 같은 헌금액 감소현상을 겪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UMC 교단 재무 및 행정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회의를 소집하고 기부금 감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UMC총회 재무책임자인 릭 킹(Rick King)은 ‘UMC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단 헌금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며 “미국 내 전염병이 시작된 서해안(west coast)에 위치한 서부관할 지역에서 더욱 현상이 두드러졌

다”고 밝혔다.

헌금액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은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단 내 입장 차이도 있다. UMC는 최근까지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인 논쟁을 이어왔다.

UMC는 2019년 2월, 정기 총회 특별회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현재의 전통적 입장(present traditional stance)을 재확인하자, 교단 내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기부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교단은 웹사이트(ResourceUMC.org)와 소셜 미디어(#IGiveUMC)를 통해 기부 장려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 광고로 42만 5000명, 소셜 미디어를 통해 62만 4000명에게 다가갔다고 교단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진 기자

미주복음방송 “나눔-On(온) 캠페인 특별 공개 생방송

“나눔-On(온)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기도와 생필품, 생계비를 지원해온 미주복음방송(AM 1190)이 오는 24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0 나눔 On(온) 특별 공개 생방송”을 실시한다.

미주복음방송은 지난달부터 나눔 On(온) 캠페인 시작해 현재까지(6월 9일) 총 30,810달러 후원금을 모아 신학생, 유학생, 장애인, 서류 미비자 등 18명에게 총 18,000달러의 장학금과 생계지원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품 후원으로 쌀 285포, 화장지 252 롤, 마스크 16,500장, 손세정액 120개, 비누 50개, 옷, 상품권 300장, 김치 18통 등을 받아, 선교지와 장애인 단체, 노숙자 지원, 시니어 아파트, 양로병원, 양로원 등 총 112명에게 쌀 32포, 화장지 30 롤, 마스크 4,960장, 상품권 88장, 김치 18통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미주복음방송 대외협력 담당 김병호 목사는 “특별 공개 생방송은 나눔-On(온) 캠페인의 중간보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후원과 동참을 요청드리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후원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사랑의 빛을 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이 “나눔-On(온) 캠페인”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했다.

김병호 목사는 “이날 공개 생방송을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으며, 각 진행자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오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애너하임에 위치한 사옥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쌀과 마스크, 화장지, 손세정제, 라면, 스낵 등이 담긴 패키지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화 714-484-1190 이메일 nanum-on@kgbc.com

김동욱 기자

작은 나눔을 모아
사랑의 불을 켜주세요!

6/24
특별
공개
생방송

~ 일시: 6월 24일 (수),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나눔 생방송 공개
은혜를 보고 따뜻한 나눔 스토리 공개!

실시간 나눔 참여 및 문의
714.484.1190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고서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
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정신대 명예교수),
이종희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마주교회), 신정민목사(통일선대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강간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번역자료로 주를 할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일 목사
책의 판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 독재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w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몸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일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2

“미주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온 한 청년의 간증을 들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된 “미주 청년 대장정(March)”이 한 달여간의 전도 행진을 마치고 지난 6월 10일에 해산하였다.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였던 E.M. 청년들이 돌아와 주일예배 시간에 간증 보고를 하였다. 필자의 교회는 교우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전 주일예배 때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파송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주일예배 시에 선교보고 간증을 모든 이들이 다 하게 된다.

그렇게 파송받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한 청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막혀 있는 중에 선교와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아! Misio dei” 정녕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심을 다시금 청년들에게서 배웠다. 청년의 간증을 요약하여 쓰겠다.

“이번엔 시작부터 놀라웠어요. 교회마다 대장정팀 모집을 하는데 코로나로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어딜 가려하느냐는 등의 반대와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런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까지 하시는 말을 듣고 저희 리더십들은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좀 영상 준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얻은 결론은 반대하는 중에 참여하는 팀원이 있으면 - 물론 교회에 허락을 받고 - 하나님 뜻으로 알자는 것이었어요. 매년 40여 명 안팎으로 참여하는데 20명 정도만 참여하여도 3개 팀(북미 동부, 중부, 서부)으로 나누어 북에서 남으로 종단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신정기간임에도 참가신청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 모두 교회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민족으로, 한인들 분포는 약 30% 정도이고 서로 다른 교회와 종족들로 구성된 미국 선교팀다운 다민족 선교팀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두 너무 기뻐요.

4월 한 달 동안 영상을 통해 준비기간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각 팀을 짰어요. 팀별로 12명씩 8개의 팀으로 짰고 가능하면 서부팀은 동부나 중부로, 동부팀은 서부나 중부로 자기들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주로 갔어요. 저는 동부팀 다민족 청년들과 한 팀이 되어 서부의 밴쿠버부터 샌디에이고까지의 대장정을 경험했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요. 시작하기 전부터 불신과 두려움의 영이 저희를 많이 괴롭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릴까? 선교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등의 두려움이 청년들에게 역사하였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도시에 가서 가급적 한산하고 높은 지대에 올라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도시 거리를 걸으며 전도하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열접하는 반응이 좋았어요. 걱정한 대로 교회들은 평일에 거의 텅텅 비어 있어서 선교비전을 나누기가 어려웠는데 거리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개인 영혼들은 우리와 대화 나누고 싶어 하고 구원받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거리나 캠퍼스 전도에 많은 시간을 두면서 개인전도에 힘을 썼고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꼭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턴스를 두라고 하신 말씀들을 지키면서 거리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작할 때는 두려움 속에서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행진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앞길에 전도반을 영혼들을 준비해 두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날마다 각 팀 리더십들이 영상으로 모여서 평가회를 갖는데 전국에서 각 팀들마다 다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면서 우리는 마지막 전도 행진을 뉴욕에서 하였어요.

100여 명의 다민족 청년들이 뉴욕 거리에서 -중심가에선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있어서 그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매일 3, 4마일을 걸으며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 했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행진에 같이 걸었고, 어려운 때 예수님을 전하는 청년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주민들도 많았어요.”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4) 도전

도전의 아름다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앨리슨 래퍼(Alison Lapper)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96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해표지 증이라고 팔과 다리가 없이 손과 발만 몸에 붙어서 태어나는 병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부모님에 의해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호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녀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보호 시설에서 자라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녀는 22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행합니다. 아이를 갖는데 번번이 유산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장애인인 그녀가 임신하면 아이도, 당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걱정합니다. 그녀는 2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 후 몇 번의 연애와 유산을 경험하고, 34세에 다시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임신과 출산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연약한 그녀의 척추와 다른 신체기관에 무리가 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와 고난을 극복하고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미술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여 해럴리 예술 종합학교와 브라이언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최고우등학위로 졸업합니다. 그녀는 구축화가로 활동합니다. 그녀는 임신한 여성의 몸과 모성애를 주제로 작품을 펼쳐왔으며, 이런 작품 활동은 장애인과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로 인정돼, ‘위민스 월드 어워즈(Women’s World Awards)’에서 ‘세계 여성성취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괴로움과 삶의 이야기 ‘앨리슨 래퍼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당당한 도전으로 삶에 맞서 온 앨리슨 래퍼의 용기 있는 삶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나의 장애는 내 인생에는 장애가 되지 않

았다’라는 말로 대중의 잘못된 편견을 깬 것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팔이 없는 래퍼가 숟가락을 입에 물어 아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자동차에 아이를 태워 짧은 두 다리로 운전하여 학교에 보냅니다. 이런 래퍼의 일상을 소개한 TV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주십니다.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긍정적 생각으로 저의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1%의 의지가 99%의 도전을 가능케 하고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전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지금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언젠가 끝나며 앞으로 나가다 보면 꿈도 이룹니다. 고통도 극복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습니다. 장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일 뿐 마음의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을 뛰어넘는 도전의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립니다. 그녀는

행복한 도전자입니다.

브루클린 다리(Brooklyn Bridge)는 뉴욕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중 하나입니다. 1883년에 완공되어서 뉴욕 동쪽 강 이스트 리버(East River)를 건너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세계 최초의 철제 교각입니다.

이 다리를 처음 놓겠다고 한 사람이 로우블링(A.J. Roebling)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우블링은 원래 이 다리가 없을 때 브루클린행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얼음에 갇혀 오래 지체한 경험 후에 ‘공중에 매다는 다리를 만들겠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가 시작될 때 이 페리와 선착장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으깨집니다. 그는 다리를 잘라내고 3주 후에 파사풍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건축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워싱턴 로우블링(Washington Roebling)이 이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공사 중에 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아내 에밀리 로우블링(Emily Warren Roebling)이 남편에 이어 다리 공사를 맡아 13년 만에 공사를 완공합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도전하여 13년 만에 이 다리가 완성되어 명물이 됐습니다.

장애를 넘어 도전하는 길에 행복이 있습니다. 장애에 도전하며 희망을 품고 장애를 뛰어 넘을 때 행복이 자랍니다.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전하며 쏟는 힘이 행복의 에너지입니다. 도전하며 흘리는 땀이 행복을 가꿉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김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미남침례교 총회장, “노예주 이름 딴 의사봉 교체” 교단에 촉구

미국 내에 인종 차별 문제와 흑인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미 남침례교단(SBC)이 과거 노예를 소유했던 교단 지도자의 이름을 딴 의사봉을 총회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남침례교 총회장인 J.D. 그리어 목사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19세기 남침례교 지도자인 존 브로두스(John Broadus)의 이름이 적힌 의사봉을 들고 연례 총회모임을 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남부침례신학교가 2018년에 발표한 ‘역사 속 노예와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두스는 노예를 소유했었고 노예제도는 도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부침례교인들이 남부 연합- 노예제를 찬성한 -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872년부터는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어 총회장은 버밍엄에서 연



남침례교 총회장 J.D. 그리어 목사 ©lifeway.com

차 총회를 주재할 당시에 ‘존 브로두스의 의사봉’을 건네 받았을 때 ‘우려(unease)’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존 브로더스는 말년에 자

신의 입장을 일부 바꾼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노예제도가 SBC가 만들어질 당시에 한 역할을 감안하면, 여전히 엇갈린(mixed)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남침례교인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싶지도, 지울 수도 없지만, 이제 이 의사봉은 집행위 사무실의 전시장으로 다시 돌아

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슈빌에서 열리는 내년 총회에서는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한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리어 총회장은 경찰관에 의해 죽임당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함께, 남부 침례교인들이 인종 차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로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특히 이번과 같은 순간에, 우리의 유색인종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그들 공동체에 적어 두신 리더십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 형제 자매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SBC 총회장 연설에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movement)은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부 정치 공작원들이 장악한 단체(organization)들과는 선을 그었다.

김진 기자

인종차별 회개하며 흑인 앞에 무릎꿇은 백인 기독교인들

다민족 기도 운동 그룹 ‘프레이 테스트’ (Praytest)

한 백인 기독교인 래퍼가 시작한 인종차별 회개 기도운동이 미 전역의 기독교인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백인 기독교인 래퍼인 바비 헤링(Bobby “Tre9” Herring)이 시작한 미국 휴스턴의 다민족 기도 그룹 ‘프레이 테스트’(Praytest)는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 기독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에 대해 회개하는 영상을 찍으며 알려졌다.

조지 플로이드가 성장한 휴스턴의 공영주택지역인 서드워드(Third Ward) 지역에서 녹화된 이 영상에는 프리인디드처치(Free Indeed Church)의 자니 디 젤트리(Johnny D. Gentry) 목사가 이끄는 흑인 기독교인 그룹 앞에서 헤링이 이끄는 백인 기독교인 그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이 영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며칠 뒤에 촬영됐다.

헤링은 최근 현지언론인 클릭투 휴스턴(Click2Houston)과의 인터뷰에서 “자니 젤트리 목사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보며 녹화한 영상에는 백인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흑인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이 또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부터 프레이 테스트는 계속 증가했다. 휴스턴뿐만 아니라 오스틴, 리빙스턴, 샬럿(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하 7:14(“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간 흑인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조지 플로이드와 그 밖의 많은 사람



빨간색과 하얀색 무늬 모자를 쓰고 무릎을 꿇고 있는 크리스천 래퍼 바비 헤링과 다른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휴스턴과 그 주변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 및 가족들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헤링 아이즈 온 미’(Herring’s Eyes

on Me)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희망을 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연대해 무료 프레이테스트 전략 가이드를 제공해 왔다.

이 가이드는 “진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백인 1명과 아프리카

계 미국인 1명으로 연결된 이들이 다민족의 신자를 모으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그들의 필요, 고통, 상처, 투쟁,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진 기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굳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판 매 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코로나19·플로이드 이후 ‘고난’, ‘불평등’ 관한 설교 급증



코로나19 팬데믹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교회 강단에서 ‘고난’ ‘불평등’을 주제로 한 설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Unplash/Tai's Captures

코로나19 팬데믹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교회 강단에서 ‘고난’ ‘불평등’을 주제로 한 설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는 8일 목회자들의 성경연구 및 설교작성 등을 돕는 페이스라이프닷컴(Faithlife.com)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발표를 분석해 보도했다.

올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목회자들이 페이스라이프닷컴에 올린 설교 주제 태그는 ‘고난’ ‘불평등’ ‘종말’ ‘질병’ ‘두려움’ ‘교회’ ‘희망’ ‘기도’ 등이 다수를 이뤘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난’ 설교 태그가 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에서 1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희망’은 13%에서 23%, ‘영원함’은 15%에서 21%, ‘두려움’은 12%에서 22%, ‘질병’은 1%에서 4%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말의 때인지에 대한 일부 목회자들의 논쟁으로 ‘종말론’ 설

교 태그가 전년과 비교해 1%에서 6%로 증가했다. 현장예배 중단과 관련해진 ‘교회’ 태그가 12%에서 26%, ‘정부’ 태그가 4%에서 11%로 늘어났다.

‘기도’ 설교 태그도 10%에서 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라이프닷컴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할 당시 두려움, 질병, 평안, 교회에 관한 설교 태그가 급증했다. 이후 교회, 기도 태그가 4월과 5월 말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반면 두려움과 질병 태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했다”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엔 ‘성령’ ‘불평등’ ‘권력’ 설교 태그가 급격히 늘어났다.

페이스라이프닷컴은 “이 자료 결과는 미국 목회자들이 팬데믹 등 최근 일련의 비극을 겪은 교인들에게 현재 상황을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영적 최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격려했다.

김근혜 기자

조지 플로이드 사망한 거리서 수십명 세례 받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거리에서 시위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있다. © 조엘 봄버거 페이스북 캡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진 가운데 시위 참가자 중 수십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9일 CBN뉴스가 보도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아폴리스시의 거리에서 수백여명의 평화적인 시위참가자들이 모여 예배와 전도, 침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차별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영상과 사진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목회팀 ‘서킷 라이더’(Circuit Riders)의 설교자인 조엘 봄버거(Joel Bomberger) 목사는 거리에서 침례 의식을 하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유했다.

봄버거 목사는 “서킷 라이더 팀은 미네아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교차로에서 공개 설교와 치유 사역을 진행했다”면서 “간증이 너무 많다. 수천명의 군중에게 설교할 수 있었으며 수백명의 시위참가자들이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한 “미네아폴리스에서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변화되고 다시 태어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고되었다”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창간 장애인인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다.

서킷 라이더 팀원들에 따르면 이 거리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함께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한 영상에서는 거리 설교자가 군중들과 함께 “당신께서 다시 일으켜세우시고 삶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완전함을 보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어떤 SNS 사용자는 거리 시위 참가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화합의 상징으로 서로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교육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일침례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후 7:00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어린2세를 축복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le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아침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포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일예배) (소매매)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신도모임가 만민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향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람의 나뉠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훈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조준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송재호 담임목사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이정현 담임목사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나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헌양찬인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방수민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절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윤대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5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T. (818) 365-6587

MP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00
수요일성경공부 저녁 7:45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T. (626) 357-58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회를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nhvision.org

이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교인수 22만’ 인도 최대 교회의 성장비결 뭘까?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갈보리템플처치는 2005년에 25명의 성도로 시작해 현재 22만 성도로 부흥성장했다. ©Facebook/Calvary Temple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갈보리템플처치는 2005년에 25명의 성도로 시작해 현재 22만 성도로 부흥성장했다. 매달 3천 명의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매년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교인이 늘어났다. 4만 명 규모의 예배당에서는 매 주일 다섯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미국의 필 쿡 칼럼니스트는 8일 처리 리더스닷컴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갈보리템플처치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않았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필 쿡은 “갈보리템플처치는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며 “이 교회는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라고 주목했다.

특별한 교회성장 프로그램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인은 무엇일까. 필 쿡에 따르면, 십자가 중심의 복음적 메시지와 복음주의 운동, 지역 사회를 향한 아웃리치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교회는 인도의 빈곤한 이웃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와 급식소, 은퇴자를 위한 숙소 등을 마련했다. 특히 담임인 사티쉬 쿠마르 목사는 교회 설립 때부터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가족처럼 섬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성장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찾아

왔을까. 필 쿡은 “교회성장 프로그램 대신 주일마다 모든 교인이 새신자를 초대하는 ‘새신자 초대 문화’가 교회 내에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교인들은 가족을 비롯한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등을 교회와 주일예배에 적극적으로 초대했다. 주일에 새신자를 데려오지 않는 교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필 쿡은 덧붙였다.

필 쿡은 “이 교회의 초대 문화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했던 순간을 생각나게 했다”면서 “미국 교회에서는 왜 초대 문화를 잃어버렸을까. 만약 묵히자라면, 교회에 새신자를 초대하는 중요성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만약 교인이라면, 교회에 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가. 혹시 두려워하는가? 혹은 자기중심적인가?”라고 되물었다.

필 쿡은 “소셜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장함에 따라 주일마다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초대해도 예배 참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미국 교회는 교회성장 캠페인, 홍보 등에 열을 올리고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정작 초대라는 간단한 능력을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 쿡은 “갈보리체플처치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아직 얻지 못한 이들을 주께로 이끌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근혜 기자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기독교 급속히 성장”



©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란에서 기독교가 전례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CBN뉴스가 지난 13일 보도했다.

순교자의 소리 토드 넬튼(Todd Nettleton) 대변인에 따르면 이란에서 기독교가 성장하자 이슬람 성직자들은 기독교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가장 교회는 정교회로 당국에 의해 목표가 되고 있으며 기독교로의 개종은 실제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하바트 뉴스(Mohabat News)에 따르면 가정과 교육 영역에서 청소년이 지켜야 할 엄격한 이슬람 교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종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 이슬람 정부는 이란 국경 안팎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슬람을 장려하는 단체의 지원에 많은 재정을 지원했으나 이란 청년들은 이슬람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란 정부에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이슬람 지도자인 아야톨라 마카렘 쉬라지(Ayatollah Makarem Shirazi)가 마쉬하드(Mashhad) 교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독교의 인기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이 도시의 종교 및 정치 관

리들은 이 지역에 이슬람 교사와 설교자를 파견해 청년들을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했다.

얼마 후 기독교인 개종자들의 체포를 비롯해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또 이란 이슬람 정부는 기독교 확산을 막기 위해 두가지 계획을 시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첫 번째는 이란 전역에서 이슬람 홍보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새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초점을 맞춘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또한 중앙하나님의성회(AOG)와 테헤란의 야나트아바드 교회(Janat Abad church), 알와즈의 하나님의성회교회를 폐쇄했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또한 공식적으로 교회 입장이 금지되었고 페르시아식 예배도 모든 교회에서 영구적으로 취소됐다.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 또는 기독교를 언급하는 자료의 출판도 제한되었으며 마켓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은 압수됐다. 그러나 이란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독교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한국 목회자들, “코로나 후 교인 수 회복 1년 걸릴 것”



한 교회에서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통합총회 전국 목회자 대상 설문 63.1% “현장 예배 소중함 경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 ‘예배의 소중함 인식’을 꼽았다. 사태 종식 후 교인 수 변화는 절반 가량이 ‘감소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주제 1순위는 ‘예배의 본질 정립’으로 나타났다.

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총회는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교단 소속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15일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3.1%(복수응답 포함)가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8.4%는 ‘생활신앙 중요성 인식’, 23.8%는 ‘목회자의 목회(목양) 방식’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고 답했고 23.1%는 ‘성도 간 교제의 소중함 경험’, 16.7%는 ‘온라인 시스템/컨텐츠 개발’을 꼽았다. ‘교회의 공적 역할 강화(16.4%)’, ‘가정예배의 소중함 경험(12.8%)’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 사태 종식 후 교회의 출석 교인 수 변화를 예측하는 질문에는 약 절반인 49.2%가 ‘감소할 것 같다’고, 20.8%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교인 수가 몇 %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10~20% 미만’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30% 미만’ 31.0%, ‘30~40% 미만’ 16.9%, 40% 이상’ 7.6%, ‘10% 미만’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석 교인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1/3이(33.3%) ‘1년’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은 28.4%,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도 18.0%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1순위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43.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21.2%, ‘교회의 공적인 역할’ 12.9%,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겠느냐는 질문에는 ‘실교력 강화’(19.0%)와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 성화’(18.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식, 예전/모이는 예배화’ 16.5%, ‘교회 공공성/지역사회 섬김’, ‘심방/전도 강화’ 각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태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는 1순위로 ‘교회 출석 교인수의 감소’(29.6%)가 꼽혔다. 다음으로 ‘소형교회 어려워짐’ 16.7%, ‘온라인예배/온라인 콘텐츠 강화’ 15.3%, ‘교회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 9.9% 등으로 나타났다.

송경호 기자

“대북전단에 위협 느끼는 北 주민 아닌 정권”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과거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모습 ©뉴시스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양측 사이의 통신연락선,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서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 등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통일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남북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대체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비판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및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기조 유지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한 박사(살롱나비 상임대표, 기독교

교학술원장)는 정보 전달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북한은 닫힌 사회다. 그런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외교적 수사나 당국자들의 만만보다 통일을 위한 더 실질적인 조치”라며 “탈북자인 태영호·지성호 씨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절망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태진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도 “대북전단 살포는 언론의 자유로 기본권에 속한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에 그들의 알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진짜 평화는 그런 자유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이다. 대북전단 살포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북한 주민이 아닌 그곳 정권일 것이다. 진실을 알려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한편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 전 한북협 회장)는 대북전단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보낸다 해도 그 내용이 남북 사이의 평화를 해치는 과격한 것이라면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렇지 않고 남북의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고양하는 내용이라면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성경을 보내는 것도 좋다고 했다. “아예 법으로 대북전단 자체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주일2부예배
EM 예배
주일3부예배
KM청년예배

오전 8:00
오전 9:45
오전 9:45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n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영으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침례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중·고·대학원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 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초·중·고·대학원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초·중·고·대학원부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회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월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종교개혁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제자사역 오전 9:30(금)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개혁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2부 예배 : 오전 11: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주일학교/종교개혁 : 오전 11:30

청년부 : 오후 2: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신하를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3
T. (714) 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종교개혁예배 오전 9:15, 11:30
한미부 오전 11: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토요일 오전 10: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음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여름학기 강의스케줄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오후7시-9시	로마서	Dr. James Lee
Tue	오후7시-9시	조직신학1	Dr. Elijah Kim
Thu	오전9시-11시	룻기, 삼상,하 왕상,하	Dr. Timothy Song
	오전 11시10분- 1시10분	현대신학2	Dr. David Lee
	오후2시-오후 4시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오후7시-9시	설교학	Dr. Jong Yong kim
Fri	오후7시-9시	청교도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 주 크 리 스 천 신 학 대 학 교 (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지혜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좋은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좋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나쁜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쁜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부가 뿌린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에 그 씨앗에 관심을 갖고, 성심껏 또한 지혜롭게 돌볼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선택한 어떤 생각에 관심을 갖고, 그 생각을 가꾸고 키울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키우고 가꾼다는 것은, 선택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집중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이 점점 더 선명해 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집중력이 통찰력을 낳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집중하고 반복하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생각에 기도와 믿음과 상상과 감정을 더하게 되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엡 3:20).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언어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생각과 언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창 1:1).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태초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창조의 원천이요, 창조의 뿌리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생각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스캇 펙이 쓴 《아직도 가야할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게을렀던 까닭에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일 아담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과 하와가 생각을 조금만 부지런히 했었다더라면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 전달했습니다. 옛 뱀 곧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유혹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비교했었다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게으름으로 아담과 그 후예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깊이 생각할 줄 아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유혹했던 옛 뱀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마 4:6).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깊이 생각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생각은 미리 암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미리 암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 물리치셨습니다(마 4:4, 7, 10). 성경 암송과 묵상은 예수님처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훈련입니다.

생각을 깊이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는 힘입니다. 온몸에 피가 잘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근육은 덤과 추울 때 몸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근육은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 강화는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을 조금 더 견딜 때 생깁니다.

몸의 근육처럼 생각의 근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의 근육이 튼튼할 때 어떤 문제를 깊이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끈기 있게 오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근육이 견고할 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는 같은 결과만 만들어냅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결과를,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생각이라면 생각을 즐기십시오. 생각을 즐기는 중에 생각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히 3:1). 무엇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고후 10:5). 영의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붕어빵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팔은 지금 제게 주의해야 할 음식이 되었지만, 팔이 듬뿍 담긴 국민간식 붕어빵은 값싸고 맛있고 양도 풍성하여 어린 시절부터 애호하던 간식이었습니다. 그런 붕어빵 이야기를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설교 중에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그 날 설교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한국에서 컨테이너 집을 부치면서 붕어빵 기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기계가 도착한 후부터 거의 매일 새벽예배 때마다 붕어빵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문제는 붕어빵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신 권사님이셨기에 제가 붕어빵 맛 감별사가 되어드려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두 달 이상을 매일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있는 붕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될 즈음에 가슴 깊이 새겨진 영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료를 그 기계에 넣어도 틀 모양이 붕어이기 때문에 결국 붕어빵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밀가루나 브라질이나 미제를 넣어도, 팔을 많이 넣건 적게 넣건, 맛이 있건 없건 나오는 것은 붕어빵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붕어빵 기계와 같은 내 생각의 틀, 삶의 틀 안에 어떤 재료가 입력이 되어도 결국 붕어빵이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삶의 태도는 실패의 붕어빵을 만들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컨디션에 따라 내가 열심을 내다가 내가 결론을 내리는 삶은 결국 실패의 붕어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생각과 삶의 태도의 틀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과 대적을 만나고 수많은 전쟁을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했고 또 넘어짐과 죄로 인한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회복되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만성천자와 같이 존경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삶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생각과 삶의 태도의 틀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what God gave me)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만사형통과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에는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따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의 태도의 틀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COVID-19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류 준 영 목사
공적신학실천센터

올해 갑작스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유행으로 교회의 하드웨어가 멈춰선 이때,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BLACK LIVES MATTER” 시위 확산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번 이슈에 관해 함께 숙고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목회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하드웨어 중심이면서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물질/건물 위주로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에 익숙한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본질에 충실하고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교회로의 전환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통해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연대하며 회복하는 목회에 초점을 두면서, 각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다가가는 공동선(Common good)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미네소타의 George

Floyd 사망 이후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는 이슈를 살펴보면 됩니다. Floyd 사망과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지난 6월 8일 뉴저지 주에서 과속 운전 단속 중에 28세 흑인 청년 모리스 고든(Morris Gordon)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Floyd가 숨지기 2일전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경찰 예산을 줄여라”(Defund the Police)라는 새 구호까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약탈/방화는 처음 있는 일 전역에서 동시 다발로 대규모의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이 참여하는 시위는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여지없이 작고 큰 비즈니스, 경찰차, 관공서, 방송국이 불에 타고 약탈당했습니다. 6월 5일까지 집계 따르면, 미국의 한인 비즈니스 150개가 불에 타거나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D. C.에서는 한인교포가 약탈에 가담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시위/방화/약탈(looting)은 외형적으로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저항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흑백 이슈와 함께 오랜 세월 지속된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부정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COVID-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룹이 흑인과 히스패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미국 경제의 중추위 직장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도 흔하게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Floyd 사건이 지속되는 인종차별과 함께 COVID-19으로 인해 더욱 표면으로 드러난 사회/경제적 구조의 모순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곧,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차별과 부정의로 인해 확대 재생산 되는 빈곤의 문제가 거대한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가 연령과 인종을 초월해 함께 행동하고 있는 현상을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 최고 지도자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미국인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경험한 고통들을 생각할 때, 지금 미국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 맞출 수 있도록(시 85:10)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미국은 “In God We Trust”라는 깃발아래 연방공화국을 건설했지만, 인종 차별과 부정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로 출범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먼 듯합니다.

미국의 타들어 가는 아픔을 보며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은 더욱 성숙한 자세로 오직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과 동시에 인종과 사회/경제적 차별을 거부하며,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정의에도 신실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복음은 나만을 위하는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서의 대사회적 책임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공적 영성이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무궁한 자원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 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교회학교, 마그네틱 메모리, 목회자료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94년만 사과행성 연마주사면 언제든지 담배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물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a.com hempbioua@gmail.com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헴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상완화
 환자의 악몽,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헴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특별기고 내가 체험한 6.25 전쟁

1950년 7월 말경에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인민군복을 입고 기차를 타고 남으로 달려 내려오던 중 UN군 제트기 4대가 나타나 웅단폭격을 수차례 가하였다. 졸지에 나는 바로 앞에 나의 키 두 배나 깊은 계곡이 있어 머리만 안 맞으면 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양 팔을 쭉 뻗고 뛰어내렸다, 순간 나는 죽었다, 잠시 후 정신이 들기 시작하여 손, 발을 만져보고 꼬집어도 보았다, 이상한 일이다? 팔이 부러지던가 아니면 어디 상처라도 있을 것인데 손가락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다. “할렐 루야”

이때에는 이미 서울은 물론이고 남한 거의 다 빼앗기고 끝자락의 포항 대구 부산만 남아 있을 때이다, 폭격의 화를 면한 나와 다른 6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쳐 계룡산에 숨어 있던 중 그(1950)해 9월 한국 날짜 14일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뒤 바뀌어 공산군들은 후퇴를 하고, 38선 남쪽에까지 내려온 인민군(약 5만 명 정부발표) 포로가 되고, 숨어 있던 나의 일행 7명도 UN군에 포로가 되어 73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73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공산군 장교 포로들이 너무나 억울했다. 낮에는 유엔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오후 6시가 되면 수백 명이 연병장에 나와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인민 공화국 기를 게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도하에 공산당 세계가 된다. 그들은 수용소가 떠나갈 정도의 호령과 구호, 그리고 북한군 군가를 부르게 했고 훈련도 시켰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그 안에 교회가 있어 직원 11명(신학교 출신)과 찬양대원 16명 도합 27명이 교회를 사수하고 있었는데 나도 찬양대 한 멤버였다.

1950년 12월 23일 밤중에 공산당(당시 빨갱이) 두목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우익 책임자 4명을 죽였다. 각 천막 안에 있는 우익들을 몽둥이로 때려 유혈이 난자한 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73 수용소에 있는 우익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였다, 사실 그들의 주목표는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정문 안에 있고 정문에는 유엔군 보조가 있었다. 그들은 먼저 텐터에서 우익들을 죽이고, 교회로 돌격해 오다가 유엔군 보조에게 발각이 되었다. 보조는 비상벨을 울리며 호루라기를 불어 대는 바람에 두목들은 줄행랑을 쳤고, 교회 27명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

며칠 동안이나 잠을 못 자며 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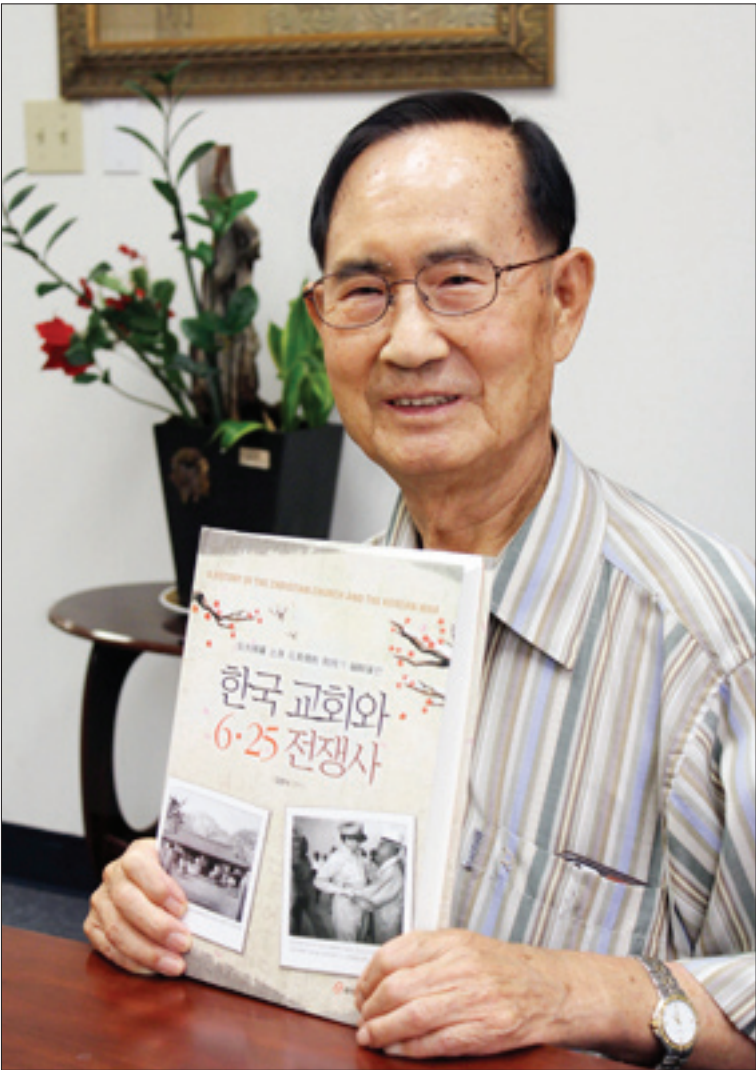
리던 차라 보조 서는 유엔군을 믿고 모두 뛰어떨어져 있는데 유엔군들이 들어와 구두 발로 막 차며 깨우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 소리를 들으니 몽둥이로 얻어맞은 포로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울부짖던 소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 귓가를 맴돌고 있다!

그 후에 이 소리가 수시로 들려서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왜 또 살려 주셨습니까? 폭격에서는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 오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까? 순간 분명히 “너 쓸려!”라는 음성을 듣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굳게 굳게 결심을 하였고, 그 후부터 오늘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다.

날이 밝아 성탄 전날이 되었다, 온종일 유엔군의 호위를 받으며 두목들과 빨갱이들 천 여 명을 모두 다른 수용소로 내쫓고, 옥호열 군복을 통해 만국기를 구입하여 밤을 지새우며 유엔군 깃발을 중심 동, 서, 남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만국기를 게양하였다,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두 시가 되었나 보다, 모두 눈을 부치려고 천막에 들어가 눕자 즉시 모두 꿈아떨어졌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거리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아갔다, 크리스마스이브 이간만 거제도의 겨울밤은 맑았다. 반짝이는 별들아래서 나는 고향 생각에 깊이 잠겼다. 그때 멀리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렸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후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매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은 나를 울렸다.

당시 나는 너무도 쇠약하고, 초라하고 가련한 신세로 생명을 유지하며 하루 이틀을 살아가는 포로 신세였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언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고독에 잠겨있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 놓았다, 울고 또 울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다, 지금도 이 캐롤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안경을 적시고 있다! 날이 밝아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이다, 9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두 연병장에 나왔다, 어찌가지도 공화국기가 게양돼 있었는데 연병장 하늘을 뒤덮은 채 휘날리는 만국기가 놀라웠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한 찬송을 돌려보



반공포로 출신 목회자 김창식 목사

내고 앞드려 절하세 앞드려 절하세 앞드려 절하세 구세주 님네, 를 1절-4절 까지 부를 때에 목이 메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얼룩진 은혜 넘치는 성탄절 예배였다. “할렐 루야”

다음 날부터는 육신은 포로이나 마음은 은혜 넘쳤다. 나름대로 기쁜 신앙생활의 계기를 찾은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1952년도 초가 되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휴전 협정에서 포로교환 문제가 제기되어 북한에 억류된 유엔군 포로(5천 명)들과 남한에 유엔군에 억류된 포로 5만 명의 교환이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꿈짜없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면 개죽음이나 매 한 가지다.

그러기에 교회 직원 27명이 주동하고 우익 900여 명도 합세하여 “포로 교화 결사반대” “포로교환 결사반대”를 외쳐도 무반응이었다, 최후 수단으로 우익 9백여 명은 셔츠를 찢어 먹으로 쓴 “결사 반공”의 머리띠를, 그리고 교직원 27명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포로교환 결사반대”의 띠를 이마에 동이고 외쳤다. 외치고 외치다가 쓰러지는 자도 있었다, 마침 옥호열 군복께서 이 처절한 모습을 보고 머피피 27개를 거두어 이승만 대통령께 보냈었다.

피로 쓴 “포로 교환 결사반대”의

머피피 27개를 받아 든 대통령은 비상한 결단을 하고 한국군 헌병 사령관인 원영덕 장군에게 비밀지령을 내려 6월 18일 밤 자정을 기해 각 수용소에 철조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그리로 포로들을 탈출시켰다, 일시에 수천 명이 탈출하려고 몰려와 깔려 죽는 자도 있었다, 나도 같이 행동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가시 철망으로 기어 올라가는 자들이 보였다, 나도 이 방법을 택하고 가시 철망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중간 치 신규약 성경을 지니고 탈출하는 중이었다.

작은 성경 이면 주머니에 넣고 두손으로 기어오를 수가 있는데, 중간 크기의 성경이었기에 한 손으로 성경을 쥐고 한 손으로 철망을 오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방법은 단 하나 성경을 버리고 올라가야만 가능하,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려! 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순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 결국 나는 6.18 반공포로 석방을 포기했다.

휴전 협정 회의가 본격적으로 성사되어 포로 교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만의 하나 유엔군이 철수를 하면 우리 국군들은 단독으로라도 복진을 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뜻이 관

철되었다. 이때에 대통령은 UN군이 첫째: 한미 방위조약 체결, 둘째: 황폐화된 한국 재건, 셋째: 국군 현대화, 넷째: 자유의사에 의한 포로 교환. 이처럼 4 대공 약을 내세우며 실천 약속을 받고 서명을 함으로써 휴전이 성사되었고, 나는 1954년 1월 24일 대한민국 자유의 시민이 되었다. “할렐 루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그 결과는 잿더미 화 된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세계 정상 12권에 까지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쟁 연구가들은 말한다. 이 사실을 나는 “한국 교회와 6.25 전쟁사”에 기록하였다. 모를지기 위에 기술 한 바 ‘4대 공약’에 대한 사건은 본 칼럼이 두 번째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 “한국 교회와 6.25 전쟁 사” 책을 읽어 보시려면 강태광 목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1954년 1월 24일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나는 서울에서 6 18 반공 포로 석방 때 탈출한 수용소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던 친구 김해련을 만났다, 얼마나 반가운지 얼싸안고 감격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사연 인즉 6.18 반공 포로 석방 시 철망을 타고 꼭대기에 올랐을 때 유엔군(포로 수용법에 철망에 오르면 총을 발사해도 된다고 함)의 총에 맞아 다리를 관통하였는데 옥호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하였고, 지금은 옥호열 선교사님의 장학금으로 예술대학에서 피아노도 전공을 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나의 뒤통수를 치며 “성경책이 너를 살렸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 후부터 나는 나를 구한 이 성경을 우리 가보로 여기고 보관하고 있다. 자녀들에게도 성경책을 보여주며 “이 성경책이 너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으니 예수를 잘 믿으라”고 권하고 있다.

석방이 된 나도 즉시 옥호열 선교사님의 장학금으로 서울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또 출장학금으로 숭실대학 철학과에 입학, 졸업을 하고, 계속 목회를 시작하여 신촌 성결교회 교육전도사, 문래동 성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대문 성결교회, 담십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그리고 1972년도 초에 미국에 건너와서 쉐랜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25년 간 담임 목회를 하며 신학교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였다. 지난 90년 인생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건강검 무선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For the Spirit & Body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4:21-24



서울성온교회 목사 장재효

1. 사랑의 열매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나타나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자격을 회복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협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애та게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대 가운데 사랑하시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나타나지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열매 맺는 삶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지극히 사랑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희생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소원에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할 입장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는데 목적을 둔 소원어린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세상을 향한 육신이 요구하는 육신의 열매를 얻어 보자고 하는 입장이 많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입장인 것이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제물로 십

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시며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신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궁극적 소원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는 것에 예수님의 희생에 따른 최고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는 신앙적 기대와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하는 습성은 예수님이 절대 함께 해 주실 수 없는 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말씀절대주의, 말씀제일주의신앙
본문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17)하신 말씀(계명)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끊어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은 곧 계명입니다.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기준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살고 그 법을 어기면 죽는 것은 만고의 원칙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리는 선과 같은 계명의 법(말씀)을 거역하고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나가 죽게 된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의 권위를 절대시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다짐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그 말씀에 의해서 회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사는 하늘 시민권자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말씀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늘의 영생복락이라는 조건을 허락받은 소망의 후사인 자격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 절대주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절대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얻어놓은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생활의 열매가 곧 예수님과 우리사이에서 연합하여 맺어드리는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반응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해타산(利害打算)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시키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를 막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일을 이루어 낼 때까지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을 각오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그 계획을 위해 요나를 다른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직전의 니느웨를 회개시켜 구원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 맺기를 원치 않으시고, 요나를 돌이켜 그와 더불어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의 요나가 아닌 거듭난 사역자로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 같이, 하나님은 성온교회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선교의 열매를 맺어보자고 불러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선
본문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

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생과 하늘나라 후사(後嗣:대를 잇는 자식)로 살 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중재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사랑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좇아 그 법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시켜 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다시 하나님과 인연을 회복하면 우리가 이제는 피조물과 조물주라는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인연을 축복받아서 우리는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그 인연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시어서 나라는 존재가 예전의 죄악 된 습관을 고쳐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감적인 신앙에 젖어 사는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생명선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점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감적체질로 사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책임을 저주십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 믿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온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부총회장 당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한 권의 철학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감석 저음
336면 / 13,000원

소감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한국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다민 루터 강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상, 천상열로총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결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전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인대학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송학 군 농어촌 부흥, 회회목 사기, 송학 정액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서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보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윤영에서,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쿨란출판사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기적의 씨앗

크든 작든, 사용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수의 학습법
한근태
이지퍼블리싱 | 276쪽

지금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고
지금 모르는 것을 채우려는 사람은 성장을 계속한다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에서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시대를 살게 될 우리다.

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이 시기에
배움을 중단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공부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 이제 공부해서 남 주는 시대로 백종원, 비법 과감하게 공개해

모으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적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공부해서 남 주는’ 시대가 되었다. 모으는 시대에서 쓰는 시대로 변화된 것이다.

요식업만큼 비밀이 많은 직종도 없다. 방송에 나오는 맛집들은 비법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비법을 지킨다.

전달되지 않는 정보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 방송 출연을 자랑하는 현수막 밑으로 폐업하는 식당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반면 자신의 영업 비밀을 알려줘 오레가는 사람이 있다. 백종원이다. 백종원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비법을 공개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가 출연하는 방송은 화제를 몰고 다녔고 높은 시청률은 덤으로 따라왔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자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몰렸다.

공부해서 혼자 사는 시대에서 공부해서 함께 사는 시대로 변했다. 공부는 모으기 위해서가 아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잘 쓰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많아야 한다.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공부다. 대한민국의 교육률은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높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은 다르다. 공부가 지식과 연결되지 않는다.

정보 축적을 넘어 지식 활용해야 진정한 공부
배움의 시작, 부족함 깨닫고 배우려 하는 겸손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다양한 경험과 배움

일반적인 공부는 정보의 축적으로 끝내기 쉽다. <고수의 학습법>은 정보의 축적을 넘어 지식을 활용해야 진정한 공부라고 이야기한다. <고수의 학습법>의 저자는 한근

태다. 그는 한스컨설팅 대표로 이공계 대학을 나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책을 집필하며 강의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금 시대를 평가하며 지식이 자산이 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자들은 평생 먹고살 만큼 부를 축적했어도, 자식들 교육에 목숨을 건다. 부는 물려줄 수 있지만 지식은 물려줄 수 없고, 지식이 없으면 물려준 부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지식을 쌓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갈망이다. 저자는 배움의 시작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스승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필요성을 절감할 때 무엇이든 스승이 될 수 있다.

저자는 21세기는 지식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 넓게 파는 길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은 모두 여러 분야를 넘나든 사람들이다.

지식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전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화공학을 배웠다는 것은 화학 관련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다.

둘째, 늘 주변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시야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대한 발견이나 혁신은 늘 엉뚱한 곳에서 시작된다.

셋째, DNA가 다른 사람들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넷째,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문맹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다. 공부하기를 중단한 사람이다. 미래의 지식 노동자는 3년을 주기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고기가 가장 많은 곳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다. 지식도 그렇다. 교차점에서 창의성이 생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섞이는 것, 주기적으로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 문제점을 갖고 사물을 보는

것,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가끔은 자신의 분야와 단절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억지로 하는 공부? 좋아서 하는 공부! 원천은 호기심, 본능이자 발전 원동력 공부, 하면 할수록 더 공부할 것 많아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억지로 하는 공부와 좋아서 하는 공부다. 저자는 젊은 시절 재미없는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공부했던 시기다. 그러나 지금은 좋아서 공부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오랫동안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재미의 원천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공부를 재미있게 만든다. 어린 아이들은 질문이 많다. 궁금한 것이 많다. 호기심 때문이다. 저자는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호기심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발전의 원동력이다. 호기심이란 선악을 떠나 뭔가 다른 것, 저 멀리 있는 것, 이해하기 힘든 것을 알아내려는 인간의 욕망이다. 호기심이 생기면 세상은 재미있고 호기심이 사라지면 세상은 지루하다.”

공부를 오랫동안 하길 원한다면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 호기심은 또 다른 호기심을 낳고,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낳는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공부할 것이 많아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에 궁금한 것이 사라진다.

일단 시작하면 부족한 부분 알게 된다 지식, 모으기보다 사용하기가 중요해 오래 공부해도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

이렇게 얻은 지식은 사용해야 한다. 저자는 정보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한다.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보가 흔해진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다. 지식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승부가 달라진다. 지식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려는 자세와 생각한 것을 직접 실천해보려는 용기다.”

저자는 공부를 모으기 위해 하지 말고 사용하기 위해 하라고 말한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하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시 공부하게 된다. 반대로 차일피일 미루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지금 상태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

지식은 모으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 공부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식을 사용하면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공부는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믿음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사용할 때 기도할 수 있다.

믿음을 사용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을 사용할 때 두려운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 믿음을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믿음이 크든 작든, 사용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들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컨설팅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통, 교육 등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 인터넷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